

# 수능 인터넷강의 선호요인 사례분석 : 학업성취 수준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Major Factors in Taking Internet based Lectures for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according to Academic Performances by Case Studies

임 걸\*, 정영식\*\*

고려대학교 BK21교육학국제화사업단\*, 한국교육개발원\*\*

Keol Lim(gklim@korea.ac.kr)\*, Young-Sik Jeung(nurunso@kedi.or.kr)\*\*

### 요약

본 논문은 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수능능력시험 대비 인터넷 강의의 유형과 이유를 반구조화된 질적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수준 집단이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수준 집단, 그리고 중간 수준 집단의 순서였다. 한편, 학업성취도가 높은 수준 집단은 사교육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였으며, 다른 두 집단은 상대적으로 EBS를 선호하였다. 인터넷 강의에 지출되는 비용은 학업성취도 상·중·하 집단별로 전체 사교육비 지출대비 각각 57%, 2%, 16%였는데, 이는 거주지역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언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공교육 인터넷 강의의 질적 향상, 그리고 인터넷 강의와 학교교육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

■ 중심어 : | 인터넷 강의 | EBS | 학업성취 | 사교육 |

###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understand current trends in online lectures for Korean SAT based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s through a qualitative interview approach. In results, the highest academic performance group showed a good deal of interest and usage in online lectures. This group participants preferred private online lectures to public ones. However, the lowest academic group liked to use public online lectures. The middle academic groups who lived in an expensive area spent a lot of money for tutoring or attending private institutes rather than online lectures. Suggestions are: self-regulated learning is needed, public online lectures should have improved contents, and lastly, these online lectures are required to be connected with regular school curriculum.

■ keyword : | Online Lectures | EBS | Academic Performances | Private Education |

## I. 서론

최근 사교육시장의 팽창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공교육 기능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개선방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웹기반교육이 대안 중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적절히 적용될 경우 매우 매력적인 도구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2004년 초 교육인적자원부(現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같은 해 4월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사이버학습 지원을 위해 ‘EBS 수능강의’를 시작하였다[1]. 이 정책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가시화시킬 목적을 지녔다[1][2]. 당시 정부는 이러닝을 통해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을 전망하였다[3]. 이러닝은 자기효능감, 긍정적 태도 수립 등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및 학업 성취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4], 학습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사용이나 교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해 주고,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도를 높여주며, 문제해결 능력 신장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5].

이 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사이버학습 지원 영역은 2010년 현재 EBSi 뿐 아니라 다양한 사교육 업체에서 참여하여 큰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EBSi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교육 업체의 온라인 강의와 비교하였을 때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미미한 편이다. 사교육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접근과 분석은 인터넷 강의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와 활용도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인터넷 강의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능력이 인터넷 강의 수강현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된 바, 학업성취수준이 본 논문을 위한 주요 변인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과의 또는 학원과 외와 비교하였을 때 인터넷 강의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인터넷 강의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터넷 강의 현황

대학입시를 앞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 또는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를 통해 원하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학습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인터넷 강의는 새로운 학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6],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쌍방향 수업형태의 인터넷 강의로 소개되고 있다[7]. 또한 수준 및 내용별로 강의의 내용이 세분화되어 제공된다는 점도 인터넷 강의의 매력적인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8]. 2008년에는 고등학생 및 재수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 관련 설문결과[9], 수험생의 86.8%가 대입 수능능력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 소위 ‘인강’으로 불리며 대중화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온라인 강의 웹사이트 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0]. 특히 한국 교육방송공사에서 2004년부터 운영하는 ‘EBSi’와, 이미 2000년부터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한 사교육 업체 M사가 그 규모 및 내용면에서 온라인 교육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공교육으로 불리는 EBSi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개설되었는데[1], 이 사이트는 사교육의 대안을 넘어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농어촌 가정 등 이른바 소외계층의 학생도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약 8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1]. 한편, M사는 2000년 중반 설립된 이후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유명세와 더불어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초등학교 및 전문대학원 등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온라인 강의 업체로 인식되고 있다[12][13]. 방문순위정보를 제공하는 한 포털에 의하면 2010년 7월 현재 EBSi와 M사는 각각 온라인 학생교육 입시포털 방문순위의 1, 2위를 차지하며 타사와는 현격한 차

이의 방문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64개의 주요 입시포털 점유율 중 EBSi는 42%, M사는 19%를 차지하고 있다[14]. 다른 포털에서는 2010년 4월기준 순방문자 EBSi 약 139만명, M사 46만명,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30만명 이었으며, 1인당 체류시간 기준으로는 EBSi 71.54분, M사 75.99분,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 65.49분이었다[15]. 그런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강의의 대상은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강의 시장 점유율과는 별도로, 수업내용의 선호도에 있어서 M사가 EBSi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실제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명 인터넷 강사는 대부분 사교육 기관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나타났다[6][7].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2]에서 수험생 10,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EBSi강의가 다른 사교육업체에 비해 부족한 점으로 '수준별 맞춤식 강의 부족'(2987명)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2853명)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한 콘텐츠 부족'(2148명) 등을 들었다. 또한 EBSi는 강사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강좌를 녹화해야 됨에 따라 강의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더욱이 수험생들이 외면하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EBSi가 유명 사교육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16].

## 2. 인터넷 강의와 학습자 배경

전술된 바와 같이 EBSi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3]. 한 조사결과 EBSi는 성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계열별로는 일반계가 전문계보다 높았으며,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의 EBS 수능강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런데 EBSi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강한 여학생, 전문계, 읍면지역의 학습자들의 학업성취결과나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EBSi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사교육업체를 선호하여 수강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배경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데, 단적으로

는 십만원대를 전후하는 사교육 인터넷 강의료를 감안할 때 무료인 EBSi 또는 저가로 운영하는 공기관(예: 강남구청) 주관의 온라인 강의 수강 대상들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용주 등[18]은 연구를 통해 EBSi는 중간수준, 그리고 사교육 인터넷 강의 업체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 학습자들이 수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영신[19]은 주로 성별에 따라 EBS 인터넷 강의의 이용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인과 변수들 즉, 성별, 부모의 경제적 수준, 학교 형태, 거주 지역 등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데 어떠한 관계와 영향을 갖고 있는지 예비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터넷 강의 업체를 선호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 양상은 다른 변인에 비해 학습자의 학업성취수준과 가장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 차이, 선호도의 차이, 그리고 전체 사교육 대비 인터넷 강의 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주요한 변인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학업성취수준과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 등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본 연구와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수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순위 사이트를 통한 비교 분석, 시스템 로그를 통한 이용 현황 분석, 설문 조사를 통한 이용 실태 분석 등 양적 연구이었고[20-23], 특정 교과에 한정된 연구가 많았다[24][25]. 수능강의의 경우, 특정 교과가 아닌 자신의 부족하다고 생각된 여러 교과에 대한 문제풀이식의 강의를 통해 당장의 모의고사 성적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수능시험의 성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른 인터넷 강의와는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능생의 특징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에 따라,

1.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가?

2.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선호되는 인터넷 강의 업체에 차이가 있는가?
3.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개인 및 학원과외에 비해 인터넷 강의의 수강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을 통해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과 실제 활용도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집단별로 선호되는 특정한 인터넷 강의업체(EBSi 또는 기타 사교육 업체 등)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연구문제 3을 위해서 집단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파악하고 그 중 인터넷 강의비율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예비조사

연구문제를 설정하기에 앞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의 남, 녀 고등학생 1-2학년 각 5명씩 총 10명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인터넷 강의의 선호도를 비구조적인 인터뷰(unstructured interview)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인터뷰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정도를 파악한 후, 성별, 부모의 경제적 수준, 학교 형태, 학업성취수준, 거주 지역 등 학습자 배경변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인에 비해 학업성취수준이 인터넷 강의의 수강 경향성을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즉, 학업성취수준이 비교적 높은 학습자는 대체적으로 사교육 인터넷 강의를, 학업성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자는 EBSi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뷰 결과를 확인하는 구성원 체크(member check)의 과정을 통해 학업성취수준이 공교육 또는 사교육 인터넷 강의의 선호도를 구분해 주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느냐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집단 구분의 주요 기준으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 2. 연구방법

##### 2.1 표집 방법

본 논문의 연구는 질적인 인터뷰 조사방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특히 연구의 주요변인인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집방법이 활용되었다. 즉, 연구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의 수도권지역의 세 고등학교에서 선발되었는데,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집단별 구분을 하기 위해 학업성취수준이 상이한 참가자들을 선발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비확률 표집의 한 방법으로서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개체나 대상들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서[26-28], 본 논문 연구의 질적 인터뷰 수행을 위한 표집방안으로 활용되었다. 선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상 집단은 특수목적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교, 중 집단은 일반계 고등학교, 그리고 하 집단은 전문계 고등학교로 사전에 지정하였다. 다음단계로, 의도적 표집방법이 결정된 후 해당 표집 대상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이 편의적 방법(convenient base)에 의해 선발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참가집단 학교의 교사들에게 집단의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라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최종 참가자들이 결정되었다.

##### 2.2 자료수집방법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semi-structured interview protocol)을 적용한 인터뷰 안내집근(interview guide approach)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기법은 사전에 적절히 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을 기준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지만, 인터뷰 당시의 참가자의 발언 내용에 따라 보다 깊은 내용의 정보 획득이 기대될 때 비구조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인터뷰 방법이다[28][29]. 인터뷰 프로토콜의 설문내용은 학생 배경 변인, 인터넷 강의 관심도 및 활용도, 선호하는 인터넷 강의 활용 현황, 그리고 사교육 활용 현황 등 크게 네 가지 영역과 이에 대한 질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반구조화된 설문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 되었으며,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발언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우선 참가자들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본 인터뷰 실시전 약 10분에 걸쳐 학교생활 및 근황 등을 소재로 대화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1인당 약 40분에서 1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진행은 반구조화된 인터뷰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준비된 문항들을 질문한 이후 참가자들로부터 보충 답변을 유도하고,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방식의 질문을 지속함으로써 풍부한 내용과 심도깊은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의 단계에서는 인터뷰 노트, 오디오 녹음과 일을 바탕으로 획득한 정보를 전사(transcription)하였고, 전사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전사내용을 전송하여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과 의도가 맞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삼각기법(triangulation)의 절차를 걸쳐 인터뷰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2.3 참가자 특성

본 논문 연구를 위해 학업성취도 상 집단은 편의상 ‘가’ 학교, 중 집단은 ‘나’ 학교, 그리고 하 집단은 ‘다’ 학

교로 분류하였다. 가 학교의 경우 경기도에 소재한 지속형 사립학교로서 주변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른바 명문대학교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입학을 시키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었다. 나 학교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로서, 학업성취도는 보통이나 지역적 배경으로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SES : Socio-Economic Status)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 학교는 서울 소재의 전문계 고등학교로서 학습자의 대부분의 취업을 원하거나 또는 내신성적이 인문계 학교에 비해 우수하게 나오는 경향을 활용하여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가, 나, 다 학교에서 각각 6명씩이었으며, 남녀비율은 균등하게 배분되어 총 18명이었다. 참가 학생들과의 설문 결과 가 학교 참가자들의 경우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기준하였을 때 각 과목별 등급을 평균적으로 산출했을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으로서 인터뷰 참가자 전원이 명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나 학교 참가자들은 2등급에서 5등급까지 일부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수준을 갖는 참가자를 비롯하여 비교적 다양한 중간그룹을 형성하는 학습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들의 졸업 후 희망진로는 전원 대학진학이었다. 한편, 다 학

표 1. 참가자 특성

구분 <sup>1)</sup>	성별	연령	부모의 SES <sup>2)</sup>	학업성취수준 <sup>3)</sup>	희망진로
가1	남	19	중-중	1-2등급	명문대 진학
가2	남	19	중-중	1-2등급	명문대 진학
가3	남	19	중-중	1-2등급	명문대 진학
가4	여	19	중-중	1등급	명문대 진학
가5	여	19	중-중	1등급	명문대 진학
가6	여	19	중-상	1-2등급	명문대 진학
나1	남	18	중-상	2등급	대학 진학
나2	남	18	중-상	4등급	대학 진학
나3	남	18	상-하	4등급	대학 진학
나4	여	18	중-중	4등급	대학 진학
나5	여	18	중-상	3등급	대학 진학
나6	여	18	중-중	5등급	대학 진학
다1	남	19	중-하	5등급	대학 진학
다2	남	19	하-중	7등급	대학 또는 취업
다3	남	19	중-하	8등급	대학 또는 취업
다4	여	19	중-하	5등급	대학 진학
다5	여	19	상-중	5등급	대학 진학
다6	여	19	하-상	6등급	대학 또는 취업

<sup>1)</sup> 학업성취수준 상은 가, 중은 나, 하는 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sup>2)</sup> 부모의 SES은 상-상에서 하-하까지 9개 범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sup>3)</sup> 학업성취수준의 기준은 전국단위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의 평균으로 하였다.

교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5등급에서 8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들로서, 졸업후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부모의 SES의 경우 가 학교는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 나 학교는 중간 또는 중상 수준, 다 학교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이 많은 편이었다. [표 1]에 학교에 따른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부모의 SES, 학업성취능력, 그리고 졸업후 희망진로 등이 정리되었다.

## IV. 연구 결과

### 1. 인터넷 강의 관심도 및 활용도 결과

우선, 예비조사에서의 결과와 일관성있게 성별은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 및 활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의 SES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으며, 학업성취수준이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큰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 1.1 인터넷 강의 관심도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는 학업성취수준에 의해 분류된 가, 나, 다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가 집단 참가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나 집단 참가자들 대부분은 인터넷 강의에 관심이 가장 적었다. 가 집단 참가자들은 다양한 인터넷 강의 업체 이름과 해당 업체의 강사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한 가 집단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아이들과 평소에 좋은 선생님들 정보를 공유해요. 그래서 저는 언어는 ‘위너000’, 수리하고 외국어는 ‘메가000’, 사탐(사회탐구)에서 국사는 ‘이00’, 윤리는 ‘스카000’, 사회·문화는 ‘비타00’, 또 텡스가 필요한데요 그건 ‘메가000’에서 해요.” (가4)

또한, 가 집단 참가자들의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일종의 은어들에 관한 것이었다. 가 집단 참가자들은 인터뷰 도중 ‘둠강’, ‘빛강’, ‘완강’, ‘현강’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였다. 둠강은 ‘어둠의 강의’의 줄임말로써, 사실 인터넷 강의업체의 등록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 온라인 P2P(Person to Person)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일컫는 용어이다. 빛강은 둠강의 반대말로써 정상적으로 강의료를 지불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이다. 완강은 강좌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서 주로 완강이 될 경우 둠강을 위해 P2P 웹사이트에 업로드된다. 한편 현강은 ‘현장 강의’의 줄임말인데, 사실 인터넷 강의 업체가 운영하는 학원 현장에서 강의를 직접 수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EBSi가 인터넷 강의만을 위해 촬영되는 것에 비해 사실 인터넷 업체의 경우 현장강의의 내용을 비디오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므로, 보다 현장감을 느끼며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강하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한 용어로 추정된다. 나 집단과 다 집단의 인터뷰 참가자들 중 이와 같은 용어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다음은 가 집단 참가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의 대화들이다.

“완강 끝나서 둠강으로 (온라인 P2P 웹사이트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내용들이 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3학년들은 최신경향이 있는 빛강을 많이 듣지요.” (가1)

“어떤 애들은 일부러 빛강을 듣기도 하는데요, 돈을 내야 강의를 다 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기는거죠. 그것 때문에 둠강을 안 듣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5)

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는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다 집단이 오히려 나 집단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다 집단의 경우 학교의 교사들이 EBSi의 취지를 비교적 자주 설명하고 수강을 유도한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하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려는 의사는 매우 약해 보였으므로, 다 집단 참가자들의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아니라 대부분 EBS에 대한 것이었다.

“돈드는 거는 안해요. 무슨 강의를 듣던지 EBS 선생님들도 실력 있는데 굳이 다른 거 들을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다1)

“선생님들이 인강 들어보라고 해서 EBS에 대한 관심이 생겼죠.” (다3)

세 집단중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도가 가장 낮았던 나 집단 참가자들은 여러 이유로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지 않았다.

“인강을 하려면 자기 의지가 필요한데 학원은 숙제를 내주고 강요하는 게 있으니까 하게 되죠. (인강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듣기 어렵죠.” (나4)

“인강을 들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강은 나 혼자 들으니까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비교를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아요.” (나5)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 또는 흥미도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정도와 대체로 일치하였다.

### 1.2 인터넷 강의 활용도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가 집단이 인터넷 강의 활용도 역시 높았다. 가 집단 참가자들의 경우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해 매일 수 시간씩 투자하고 있었다. 특히 한 참가자(가4)의 경우 5개의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를 수강하면서 하루 4시간 동안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나 집단의 인터넷 강의 활용도는 인터뷰에서의 비선호도를 입증하듯 가 집단에 비해 현격히 떨어졌다. 인터넷 강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참가자가 일주일에 약 3회 정도였으며, 1명은 일주일에 1-2회, 2명은 한 달에 1회 정도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두 명은 인터넷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았다.

“선생님과 학생이 대면해야 공부가 잘 될 거 같고, (인터넷 강의는) 질문 주고 받는 것도 잘 안돼서...” (나1)

“인강하면 컴퓨터를 켜야 되는데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다른 거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어도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원하는 질문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말하는게 편해요.” (나6)

한편, 다 집단 인터뷰 인원 총 6명중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응답한 5명의 학생 중 두 명은 하루에 3시간, 두 명은 하루에 1시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한 달에 2회 정도 시간을 투자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나 집단 참가자들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표 2]에 참가자들의 인터넷 강의 평균수강시간이 기술되었다.

표 2. 인터넷 강의 활용도

구 분	인터넷강의 평균 수강시간
가1	하루 1시간 30분
가2	하루 2시간
가3	하루 1시간
가4	하루 4시간
가5	하루 1시간
가6	하루 3시간
나1	.
나2	한달에 1회
나3	일주일에 한 1-2회
나4	한달에 1회
나5	일주일에 3회
나6	.
다1	하루3시간
다2	한달에 2번
다3	.
다4	하루 3시간
다5	하루1시간
다6	하루1시간

2. 인터넷 강의 선호요인 결과

인터넷 강의의 활용도는 연구문제 1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 집단이 매우 높았고 나 집단과 다 집단이 낮았지만, 그 중에서는 다 집단이 나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이 활용하였다. 이러한 활용도와 인터넷 강좌 선호도 사이의 관계가 연구문제 2를 통해 확인되었다. 인터뷰 결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가 집단은 사실 강의를, 학업성취도가 낮은 다 집단은 EBSi와 일부 사실강의를, 나 집단은 주로 EBSi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교육 및 사교육 업체를 통한 인터넷 강의 수강 개수를 조사한 결과, 가 집단은 2개에서 5개로 6명 평균 총 3.33개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다. 나 집단은 전혀 듣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2개 강의 까지 평균 1개 업체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 집단은 전혀 듣지 않는 경우에서 3개 강의 까지 평균 1.5개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의 내용면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즉, 집단별로 선호하여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의 종류에 큰 차이 있었는데, 이는 공교육과 사교육 인터넷 강의 수강의 차이였다. 가 집단의 경우 전원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총 참가자 6명중 4명은 EBSi나 강남구청 등 공교육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의는 전혀 수강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 집단과 다 집단은 각각 6명중 4명, 그리고 6명중 5명이 EBSi나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를 적어도 하나를 수강하고 있었다.

표 3. 집단별 인터넷 강의 수강 현황

구분	국/공립강의	사설강의
가1	.	3개강의
가2	.	3개강의
가3	강남구청	1개강의
가4	.	5개강의
가5	.	3개강의
가6	EBSi	1개강의
나1	.	.
나2	EBSi	.
나3	EBSi, 강남구청	.
나4	EBSi	.
나5	EBSi	1개강의

나6	.	.
다1	EBSi	.
다2	EBSi	.
다3	.	.
다4	EBSi	2개강의
다5	EBSi	1개강의
다6	EBSi	1개강의

가 집단 학생들이 사실 인터넷 강의 업체를 선호하는 데에는 사실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의 장점들과 EBSi에 대한 불만 사항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실 인터넷 강의의 장점들로 거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설은 듣는 애들이 많아서 검증되었죠. 어떤 선생님이 좋다 이런게 있으니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어요.” (가2)

“(사설인) 이OO는 ‘입맛’에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학원보다 난 점이 있죠. 그리고 공인된 선생님이니까...선생님들이 연구소가 있어서 교재개발도 하고 커리(클럽) 개발도 하고. 이OO 같은 것들은 수능 전날까지 기초에서 마지막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가4)

“(사설 인터넷 업체는) 유료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만원 안팎인데, 10만원 아끼라고 EBS(i) 듣지는 않아요. 학원은 보통 30-40만원 이상 이잖아요.” (가4)

“저는 (사설 업체인) 메가OOO를 선호하는데요. 일단 애들이 많이 들어서...애들이 좋다고 하면 듣게 되는 것도 있죠.” (가6)

사실 인터넷 강의와 비교된 EBSi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EBS(i)는 교재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인터넷 강의 업체) 같은 데는 선생님들 별로 교재



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교재 내용이 더 좋아요. 사실 EBS(i)나 사설이 기본 틀은 비슷한데요, 구성이 달라요. 전 (사설인) 이OO가 마음에 들어요. 언어 같은 경우 파트별로 공부하면 좋은데, EBS(i)는 책 한 권에 끝나는 종합적인 거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설은 파트별로 있어서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가1)

“(EBSi)는 공짜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애들은 EBS(i)는 안들어요. 과목별로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따라가는데요, 선생님들이 EBS에서 시작해서 실력 늘어나면 다른 유료사이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설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은 기본 커리(꿀림)가 있어요. 근데 EBS(i)는 교재중심으로 가서 개인 커리가 없는 선생님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은 EBSi는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서 찍지만, 주요 사설 인강들은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올려서 현장감이 있어요. 아이들은 현장에서 듣지만 ‘나는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경쟁심도 유발되죠.” (가4)

EBSi의 단점으로는 무료라서 오히려 듣기 꺼리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주변에서 듣지 않길 때문에 안듣는다, 그리고 강사진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가 수강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EBS(i)는 무료라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요.” (가1)

“EBS(i)는 공짜라서 안 들어요.” (가2)

“EBSi는 1학년때 잠깐 들었는데 강사진이 검증이 안된거죠. EBS교재가 다소 부족하고 부실해서 좋은 강의가 안 나와요. 듣기가 불안해요.” (가3)

“인강은 과목별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EBS(i)는 얘기를 못들어봐서...” (가5)

“EBS(i)는 돈이 안들어서 오히려 꼭 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가6)

한편, 상대적으로 EBSi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다 집단 참가자들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무슨 인터넷 강의를 듣든지 돈드는 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EBSi도 실력 있는데 굳이 다른 것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1)

“선생님이 들어보라고 많이 권유들을 하셔서 들어요. 그런데 다른데 이용해보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다 유료라 EBSi만 들어요.” (다2)

“EBS(i)가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다5)

이와 같은 답변은 다 집단 참가자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 성향 등을 비추어볼 때 다른 사설 인터넷 강의에 비해 EBSi가 우수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인터넷 강의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집단의 경우 국공립 또는 사설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므로 인터넷 강의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 3. 사교육비 지출현황 결과

인터넷 강의의 활용도는 연구문제 1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다 집단이 매우 높았고 나 집단과 다 집단이 낮았지만, 그 중에서는 다 집단이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현황이 조사되었다. 비교집단 중 다 집단이 개인 및 학원과외에 비교했을 때 인터넷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다 집단 중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참가자는 없었으며, 2명이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인터넷 강의는 모든 참가자가 수강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6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평균 16만 5천원을 소비하였다.

나 집단은 인터넷 강의에 비해 개인과외 또는 학원과외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 결과는 나 집단이 강남 8학군에 소속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 집단 중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참가자는 1명이었

으나, 참가자 전원이 학원과외를 1과목에서 3과목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인터넷 과외는 2명이 전혀 듣지 않았으며 나머지 3명이 1과목, 2명이 2과목을 듣는다고 대답하였으나, 이에 투자하는 시간은 연구문제 2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한 주 또는 한 달 단위의 수강 주기에 불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나 집단은 인터넷 강의 대신 다른 유형의 과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인터넷 강의에는 1인당 한달 평균 1만 7천원 가량이 지출되나 개인 및 학원과외에 투자되는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 91만 7천원의 대부분인 90만원이었다. 2009년 강남지역 거주주민의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는 평균 73만 4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30], 나 집단은 이와 같은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 한편, 다 집단은 평균적으로 소비되는 사교육비가 한달에 17만 7천원으로 세 집단중 가장 낮았으며, 인터뷰 참가자 6명 중 2명은 사교육비에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없었다. 인터넷 강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집단 참가자 한 달 평균 2만 8천원이었다.

전체 사교육비 대비 인터넷 강의비용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총 사교육비에 투자되는 비용은 나 집단이 월등하게 많고 그 이후로 가, 다 집단 순서였으나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는 가, 다, 나 집단의 순서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 집단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비용 평균 29만원의 약 57%를 인터넷 강의에 투자하였으며, 나 집단은 2%, 그리고 다 집단은 16%를 소비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그림 1]에 그래프로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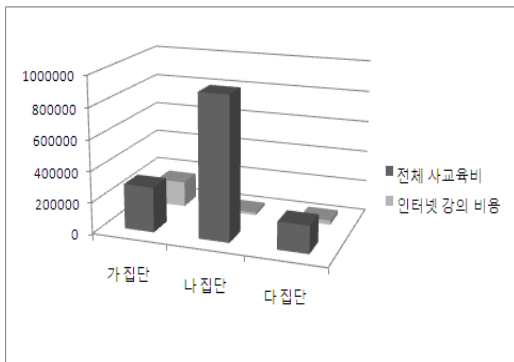


그림 1. 1인당 한달 평균 사교육비 및 인터넷강의 비용 비중

가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 집단은 전체 사교육비를 가 집단보다 약 3.2배 가량 지출하였는데, 이는 사교육비용과 학업성취수준의 관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 집단의 사교육비용 지출 내역은 개인과외나 학원수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가 집단이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가 집단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강의는 EBS가 아니라 대부분 사설 인터넷 강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사교육의 활용이 학업성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학습자원을 탐색하는가, 그리고 탐색된 학습자원을 얼마나 활용하는가의 여부인 것으로 볼 수 있었으며, 사설 인터넷 강의업체에서 제공하는 학습자원이 이러한 요구를 상당부분 만족시켰던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과외나 학원에 비용의 지출이 많은 나 집단 참가자들의 경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나 집단에서 인터넷 강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강의 상호작용성의 한계, 컴퓨터로 인터넷 강의 목적이 아닌 다른 활동(게임 등)에 몰입할 가능성, 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인터넷 강의 수강에 대한 부담 등 이었다. 다음은 나 집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이다.

“선생님과 학생이 대면해야 공부 잘되고, 인강은 질문을 주고 받는게 잘 안되잖아요.” (나1)

“부모님들이 인강을 좋게 안 보세요. 컴퓨터 커면 다른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학원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믿을만 하신거죠.” (나2)

“일일이 찾아서 보는 것 잘 안해요. 컴퓨터 안키면 안하게 되는거죠. 또 인강하면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다른 거 할 수도 있고...”(나6)

“저 같은 학생은 혼자 스스로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인강 들으면 자꾸 자게 되요. 학원은 누군가 시켜 주는 게 있으니까 가게 되요. 인강을 하려면 자기 의지가 필요한데...학원은 숙제를 내주고 강요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잘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끌어주니까...” (나4)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나 집단 참가자들은 굳이 적극적인 자세로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강의를 탐색하고 수강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편리한 방식의 개인과외 또는 학원과외를 더 선호하였다. 따라서 나 집단에서 소비하는 높은 사교육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인터넷 강의 대신 대부분 개인 또는 학원과외에 집중되는 이유는 부모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SES를 바탕으로 한 사교육 투자에 대한 용의에 참가자들의 인터넷 강의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한편, 나 집단은 개인 및 학원과외를 통해서도 소위 주요과목인 영어, 수학, 논술 등을 수강하고, 그나마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로는 기타 과목들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주요과목들은 학원에서 배우고, 설명이 필요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인강을 통해 보충하는 거죠.” (나2)

“영어 수학 같은 거는 주요과목들이니까 학원 다니면서 다른 애들과 비교도 하고...인강으로 들으면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인강은 ‘나혼자 듣는다’ 하는 (생각)...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나5)

이에 비해 가 집단은 다양한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강함으로써 도움을 받았으며, 다 집단은 주요 과목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고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은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상이한 인터넷 강의 활용 양태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학업성취수준에 의하여 구분된 집단별로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 및 선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선호하는 인터넷 강의의 종류가 상이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 대비 인터넷 강의 지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의도적 표집과정을 바탕으로 제한된 질적 사례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결과로서의 추정근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수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26], 이에 따라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약이 따른다[28]. 특히 참가자 집단 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가 집단의 경우 기숙형 학교의 특성상 인터넷 강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점, 나 집단은 부모의 SES가 월등한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다 집단은 인문계 학교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전문계 학교로서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사한 학업성취도 집단들에 비해 인터넷 강의에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 같은 표집은 집단별 거주지역의 특성이 참가자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성향과 혼재되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수준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표집된 연구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생의 국·공립 및 사설 인터넷 강의 수강 현황이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심도 있게 분석된 점에 연구의 주요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 및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심 및 선호의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 중간 수준의 집단보다 관심 및 선호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 다양한 학습원을 자발적으로 찾는 노력이 월등하였으며, 수준 높은 학습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였던 집단은 정부의 인터넷 강의 시행목적에 부합하게 EBS를

위주로 하는 인터넷 강의에 관심과 활용도를 보였다. 한편, 세 집단중 중간의 학업성취도를 갖는 집단은 인터넷 강의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보다 손쉬운 학습자인 개인과외 또는 학원과외를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연구문제 2를 통해 살펴보았던 선호하는 인터넷 강의 업체는 집단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가 집단의 경우 사설 인터넷 강의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학습 콘텐츠의 풍부성, 수준 높은 강의, 수학적능력시험에 대비한 맞춤형 수업, 또래집단의 추천 등이 꼽혔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구하는 ‘공교육 범주에서 시행하는 무료 인터넷 강의’의 최초 취지와는 상당히 배치된 결과이다. 따라서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가 집단의 결과는 사교육 인터넷 강의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 및 가정에 추가적인 과외비용의 소요를 결과적으로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 수강비용은 개인 또는 학원 과외와 비교하였을 때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강의를 접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인터넷 강의는 나름대로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여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나 집단의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학업성취수준은 가 집단 참가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지만 8학군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개인 및 학원 과외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즉, 인터넷 강의 대신 비용이 많이 드는 개인·학원과외 수강이 가능한 이유는 과외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들의 SES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간의 정보 교환이나 경쟁심리가 주변의 과외 공급을 수용한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및 학원과외는 교사의 1:1 또는 1:소수의 지도로 인해 ‘과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에 비해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도 이러한 경향에 기여를 하였다. 한편, 다 집단 학습자들은 EBS와 같은 공교육 인터넷 강의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대상들에게 실시하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와 부합된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공교육 인터넷 강의 수강시간에 비교할 때 그 효용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주변의 권유나 분위기, 또는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무료인 인터넷 강의를 단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문제 3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서는 가 집단은 사교육 인터넷 강의에 과외비용을, 나 집단은 개인 및 학원과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다 집단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사교육 비용을 소비하였다. 따라서, 학업성취수준이 높거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습자들은 사설 인터넷 강의나 개인 및 학원과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력신장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에서 소외된 집단은 낮은 효율의 공교육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는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는 최초의 취지와는 사뭇 다른 형태로 온라인 수업이 전개되는 양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교육격차 또는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BS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강의의 질적 향상의 도모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와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본 논문에서 제언되었다. 첫째, 학습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인터넷 강의는 학습자의 자발적 의지와 참여를 전제로 했을 때 높은 효용성을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여러 강좌들을 비교·선택하는 수고를 보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다. 특히 나 집단의 경우 높은 자발성이 요구되는 인터넷 강의 대신, 쉽게 접근가능하며 강사로부터 학습 진도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한’ 개인과외나 학원강의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학습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복수의 학습 자원을 보유하고 이들을 비교, 학습하는 가 집단이 결과적으로 더 우수하였다. 또한 다 집단은 나 집단에 비해서는 더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으나 가장 낮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집단으로서, 역시 인터넷 강의 또는 일부 과외 등을 통한 학습은 전반적

으로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인터넷 강의는 학교 또는 개인·학원과의와 달리 개인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방식임을 고려할 때, 자기주도적 학습방법과 연계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8][9]. 따라서 인터넷 강의 활성화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동기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본 논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학습자들이 EBSi 등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 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온라인 형태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속시켜줄 수 있는 자기주도방식의 내적, 외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교육비용을 더욱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료 또는 무료로 가까운 국·공립 인터넷 강의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이 요구된다. 이미 많은 학습자들이 EBSi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9], 실제로 학업성취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은 형식적으로 이를 이용하였고, 중간 수준의 학습자들은 인터넷 강의 자체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며,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습자들 역시 EBSi 강사와 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사설 인터넷 업체의 강의를 주로 수강하였다. 사설 인터넷 강의는 비록 개인 및 학원과의에 비해 저렴하지만, 학습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여전하다. 인터넷 강의 수강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둠강’ 등의 용어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가계비 지출과 관련하여 인터넷 강의는 오히려 학생과 가정에 교육비의 부담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2]. 따라서 EBSi를 비롯한 공교육 인터넷 강의의 질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많은 수강층을 확보하는 것이 인터넷 강의 활성화는 물론, 사교육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사교육 업체와 비교하여 지적인 EBSi의 단점들을 해소 목적으로, 사교육 인터넷 강의의 업체 강의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인터넷 강의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인터넷 강의의 학교교육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주지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각종 형태의 과외 수업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

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심지어 EBSi는 정부차원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교육이라고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사설 인터넷 강의업체와 경쟁하는 구도를 지속적으로 갖는 한 학생들에게 학교학습 이외에 부과되는 과외 수업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EBSi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회통합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계기를 달성함은 물론, 학습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교학습 보완 체계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EBSi 및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능력시험의 약 70%에 달하는 내용을 출제하는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31], 이에 따라 M사 등의 접속률이 낮아지는 반면 EBSi 사용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7].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학교학습과 EBSi강의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강의는 컴퓨터를 통해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인 만큼, 그 특징을 활용하여 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공교육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질 높은 인터넷 강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BSi를 비롯한 공교육 인터넷 강의의 향후 발전방향을 선정하고 그에 매진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교육 격차 문제를 완화함은 물론 학습자 전체의 학업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인터넷 강의의 개선과 발전에 반영되어, 인터넷 강의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3.
- [2] 한국교육개발원, EBSi 수능강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08-34, 2008.
- [3] <http://www.dje.go.kr/ctnt/ptal/info/18/>

- nfo.18.002.sp?&pageNo=63&bmode=read&Seq=177833
- [4] 이인숙, “e-Learning 학습전략 수준 및 학업성취도 규명”, 교육공학연구, 제18권, 제2호, pp.51-67. 2008.
- [5] 이정선. 이러닝 콘텐츠의 학습 유효성 평가 방법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0/200909200032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0/2009092000326.html)
-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1/2009110100350.html?srchCol=news&srchUrl=news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1/2009110100350.html?srchCol=news&srchUrl=news4)
- [8]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10300](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10300)
- [9]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10316](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410316)
- [10] [http://ko.wikipedia.org/wiki/%EC%98%A8%E B%9D%BC%EC%9D%B8\\_%EA%B0%95%EC %9D%98](http://ko.wikipedia.org/wiki/%EC%98%A8%E B%9D%BC%EC%9D%B8_%EA%B0%95%EC %9D%98)
- [11] <http://ko.wikipedia.org/wiki/Ebsi>
- [12] <http://100.naver.com/100.nhn?docid=812614>
- [13]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A%B0%80%EC%8A%A4%ED%84%B0%EB%94%94>
- [14] [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4&cat2\\_id=56&cat3\\_id=381](http://www.rankey.com/rank/rank_site_cate.php?cat1_id=4&cat2_id=56&cat3_id=381)
- [15] [http://directory.search.daum.net/site\\_detail.dau m?siteseq=544506&rpidx=0&rpstddate=&rp range=12&vs\\_conditions=www.megastudy.net&vs\\_c onditions=http%3A%2F%2Fedu.ingang.go.kr%2 F+%&x=32&y=14](http://directory.search.daum.net/site_detail.dau m?siteseq=544506&rpidx=0&rpstddate=&rp range=12&vs_conditions=www.megastudy.net&vs_c onditions=http%3A%2F%2Fedu.ingang.go.kr%2 F+%&x=32&y=14)
- [16]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 \\_ID=3410301](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 _ID=3410301)
- [17] 이희수,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5.
- [18] 이용주, 문양세, 김혜숙, 김진호, “온라인 교육 사이트의 교육 환경 및 효과 분석”, 정보통신논문지, 제12권, pp.117-123, 2008.
- [19] 문영신, *고등학생의 EBS 인터넷 강의 이용 동기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0] 김은정,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사이트 비교 분석 -수능강의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1] 김선아, *EBS 수능강의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2] 권호중, *EBS 온라인 방송 교육의 활용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3] 최혁량, *수능관련 온라인 강의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4] 조은아, *EBS 수능특강 언어영역 동영상 강의의 교수발화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25] 황윤성, *EBS 수능 영어 방송의 학년 및 소득수준별 시청 실태, 흥미도, 이해도 및 영어 성적과의 상관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6] 성내경, *표본조사 방법론*, 자유아카데미, 2003.
- [27] J. W. Creswell,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earson Education, Inc, 2008.
- [28] B. Johnson and L. Christensen, *Educational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approaches* (2nd Ed.), Pearson Education, Inc., 2004.
- [29] P. Freebody,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AGE Publications Ltd., 2004.
- [30] [http://gss.gangnam.go.kr/jsp/GSS1/GSS1000.jsp?page\\_cd=004&sub\\_cd=01](http://gss.gangnam.go.kr/jsp/GSS1/GSS1000.jsp?page_cd=004&sub_cd=01)
- [31]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0/](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0/)

03/11/2010031100150.html

저 자 소 개

임 결(Keol Lim)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석사)
- 2009년 5월 : Columbia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BK21교육학국제화  
사업단 연구교수

<관심분야> : Advanced Technologies, 정보격차

정 영 식(Young-Sik Jeong)

정회원



- 1996년 2월 : 춘천교육대학교 수  
학교육과(교육학 학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컴  
퓨터교육과(교육학 석사)
- 2004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컴  
퓨터교육과(교육학 박사)

▪ 2004년 2월 ~ 현재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이러닝, 콘텐츠표준화, 프로그래밍